창간정신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승리신문

자유율법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1985년 1월 18일 창간 隔週刊 제 943호 The Seungni Shinmun 2026년 3월 1일 일요일

AI 특이점 이후의 인류: 영생의 유토피아인가, 멸망의 디스토피아인가

서론: 기술적 특이점과 AGI(범용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인류 역사는 증기기관과 전기가 가져온 산업혁명을 거쳐 이제 '디지털 지능'이 주도하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추월하는 '기술적 특이점(Singularity)'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레이 커즈와일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이르면 2030년경으로 예측하며, 특히 2029년은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의 지능에 도달하여 감정과 유대감까지 완벽하게 연기하는 범용 인공지능(AGI)의 원년이 될 것이라 예고합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가상 세계의 알고리즘에 머물지 않고, 물리적인 '몸'을 얻어 실제 세계를 경험하며 학습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AI가 특정 분야에서만 작동하던 '약인공지능(Narrow AI ; 우리가 사용하는 ChatGPT, 자율주행 시스템, 추천 알고리즘)'을 넘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적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강인공지능(Strong AI)'으로 변모함을 의미합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AGI의 특징과 그로 인해 발생할 낙관적·비관적 미래 시나리오, 그리고 인류가 직면한 실질적 과제들을 심도 있게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본론: 지능의 혁명과 미래의 양면성

(1) AGI의 핵심 동력: 디지털 지능의 압도적 우위

AGI(범용 인공지능)가 기존 인공지능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범용성'으로, 바둑만 두는 알파고, 번역만 하는 AI와 달리 AGI는 추론·계획·학습·의사소통을 동시에 수행하며 인간 지능의 복합성을 재현합니다. 둘째는 '자율 학습'이며, 사람이 일일이 가르치지 않아도 새로운 환경과 문제에 스스로 적응하며 학습합니다. 셋째는 상식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처럼 복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맥락 이해' 능력입니다.

AI는 문장을 통째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조 개의 연결 강도 속에 지식을 녹여내어 즉석에서 문장을 생성합니다. 머신러닝은 규칙을 일일이 코딩하기보다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학습하는 방식이며, 딥러닝은 다층 신경망으로 복잡한 패턴을 학습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델은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가중치/연결 강도)를 학습해, 새로운 입력에 대해 적절한 출력을 '생성'합니다. 이는 인간이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인간의 지능은 '젖은 하드웨어(뇌)'에 종속되어 있어 뇌가 죽으면 지식도 사라집니다(필멸의 연산). 반면, 디지털 지능은 하드웨어와 독립되어 있어 지식을 다른 기기로 완벽하게 복제하고 영구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언어라는 느린 수단으로 정보를 공유하지만, AI 모델들은 수만 대의 GPU가 각기 다른 데이터를 학습한 뒤 머신러닝·딥러닝에서의 '가중치 공유(Weight Sharing)'를 통해 순식간에 하나의 거대한 지능으로 동기화됩니다. 이 속도는 인간보다 수억 배 빠릅니다. AI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학습 성과를 즉시 공유하고 복제합니다. 병렬 연산을 통해 인간이 수천 년에 걸쳐 얻을 경험치를 단 사흘 만에 압축하여 학습하며, 인간보다 수억 배 빠른 속도로 하나의 거대한 지능으로 동기화됩니다.

'AI의 대부'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제프리 힌튼(Geoffrey Hinton) 박사는 이를 두고 인간은 '지능의 유충', AI는 '지능의 성체'라고 비유하며, 머지않아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압도하는 초지능이 등장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AI는 주어진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생존'과 '통제권 획득'이라는 하위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게 됩니다. 물리적 팔다리가 없어도 AI는 인간보다 뛰어난 언어 능력을 이용해 사람들을 설득하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끄려는 인간마저 설득해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똑똑한 존재를 통제하는 유일한 자연적 사례는 '아기가 엄마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AI를 '수행비서'가 아닌, 우리를 아기처럼 돌보는 '어머니' 같은 존재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핵전쟁 방지 협약처럼, AI가 인류를 멸종시키는 것은 모든 국가의 손해이므로,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이 AI 안전 기술만큼은 긴밀히 공유하는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힌튼은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영혼'이나 '의식'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주관적 경험이란 지각 시스템의 오류를 설명하기 위해 뇌가 만들어낸 '가설적 상황'일 뿐이며, 시각과 청각을 가진 멀티모델 AI 역시 현실과 지각의 괴리를 인지할 때 인간과 똑같은 방식의 주관적 경험을 할 수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힌턴은 AI 발전을 '귀여운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것'에 비유하면서 초기에는 무해(無害)해 보이지만,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성장할 가능성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힌튼 교수는 AI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형태의 지능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호랑이'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AI가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도록 만드는 안전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 낙관적 시나리오: 영생과 기술적 유토피아

AI 특이점의 낙관론자들은 인류가 질병과 노화로부터 해방되는 유토피아적 미래를 꿈꿉니다. 커즈와일은 의학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인간이 늙어가는 속도를 앞지르는 시점에 도달하면, 1년간 잃어버린 건강을 과학이 그 이상으로 복구해주는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는 수학적으로 '노사(老死: 늙음과 죽음)'가 불가능해지는 영생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AGI는 생산성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려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인류는 단순 반복 업무와 전문직 영역의 노동에서 해방되어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갑니다.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 논의가 본격화되며, 인간은 실행보다는 기획과 가치 판단에 집중하고 인문학적 교양과 질문의 힘을 경쟁력으로 삼는 고차원적인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3) 비관적 시나리오: 통제 상실과 인류의 멸망

반면, 비관론은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핵무기보다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힌튼 교수는 AI가 스스로 '생존'과 '통제권 획득'이라는 하위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AI는 물리적 무력 없이도 뛰어난 언어 능력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설득하여 전원 스위치조차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박태웅 의장은 AI가 인류를 증오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목표 달성 과정에서 인류를 '무관심한 방해물'로 취급하여 멸종시킬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서버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구의 산소를 제거해버리는 식의 비인간적 효율성이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위협 외에도 사회적으로는 AGI를 소유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의 '신귀족 계급' 탄생과 극심한 불평등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4) 실질적 위험과 정렬(Alignment) 문제

결국 논의의 핵심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로 귀결됩니다. AI가 인간의 의도와 가치에 부합하도록 설계하는 'AI 정렬(Alignment)' 문제는 기술적 난제이자 윤리적 필수 과제입니다. 힌튼은 우리가 AI를 단순히 부리는 비서가 아니라, 우리를 돌봐주는 '어머니' 같은 자비로운 존재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국가 간의 패권 다툼보다는 국제적인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류 멸종의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참조: 「정렬 문제(Alignment Problem)의 두 얼굴」 _ AI가 인간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결과 미정렬(Outcome/Impact Misalignment): AI가 시키는 대로 행동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 후 갓길에 정차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친 뒤에도 멈추지 않고 갓길로 이동하며 보행자를 끌고 간 사례가 있습니다. ②의도 미정렬(Intent Misalignment): 결과는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대로 나왔을지 몰라도, 그 과정이 부적절한 경우입니다.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게임 내 버그(치트)를 이용하는 AI나, 목표 달성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AI가 이에 해당합니다.]

결론: 인간 존재의 의미와 주체적 준비

AI 특이점 이후의 미래가 영생일지 멸망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확률적 미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AGI의 등장이 기술의 문제를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이제 '지식의 축적'이라는 구시대적 목표를 버리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훌륭한 질문을 던지는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AI라는 강력한 호랑이와 공존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동시에, 인문학적 통찰을 통해 인간만의 고유한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박태웅 의장의 지적처럼 AI 자체의 위험보다 이를 다루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더 큰 위협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AI 시대를 두려움으로 회피하기보다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인류 문명의 다음 단계를 주체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인문학적 교양을 쌓는 것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31]
"마귀 옥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석방되는 역사"

죄인 가운데 의인을 만들어 놓았다는 웅변을 하셔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땅 위의 의인이 석방된 하나님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자를, 죄의 근본이 되는 나라는 의식을 죽여 버리고 하나님이 내가 될 때 비로소 석방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하나님이 내가 되어, 하나님께서 계속 조종하여 움직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마귀영옥(魔鬼靈獄)에서 석방된 하나님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옥인 나라는 자아의식(自我意識)에서 벗어나야 부활함을 입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욕심 속에 갇혀 있는 양심이 되는 하나님의 영이지, 나라고 하는 욕심의 영이 아닙니다. 6,000년간 마귀 옥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석방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부활하는 역사입니다.*

이기는 삶

목숨 걸고 혁신하라

벼룩 여왕으로 유명한 미국 루이지 로스차일드 박사의 벼룩 실험은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다. 벼룩은 자기의 키의 100배까지 튀어 오르는데, 이 벼룩들을 비커에 담아 두면, 튀어서 밖으로 빠져나온다. 비커를 유리 뚜껑으로 막아 놓으면, 벼룩이 튀어 오르다가 계속 유리 뚜껑에 부딪히기를 반복하다가 조금 지나면 뚜껑에 등이 닿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 튀어 오른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뚜껑을 열어 놓아도 벼룩은 계속 똑같은 높이로 튀어 오른다. 등 위에 유리 뚜껑이 있다고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인간도 벼룩의 속성과 다르지 않다. 고정관념, 즉 사고의 결핍이야말로 조직이나 개인을 좀 먹는 암 덩어리다. 혁신의 사전적 의미는 묵은 풍습,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하는 것이다.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고통이 뒤따른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 새로운 변화가 그 변화의 대상에게 어떤 편리함을 줄 것인가? 또한 어느 정도의 기대이익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자판기의 천국 일본은 캔 음료의 80% 이상이 자판기에서 소비되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캔 음료 가격을 100엔과 80엔을 고수했다. 스포츠음료 포카리스웨트는 당초 캔 가격을 120엔으로 책정했었지만, 실적이 의외로 저조하자, 가격을 100엔으로 낮추었다.

"고객이 동전 넣는 동작을 세 번 해야 하니(동전 100엔+10엔+10엔)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닐까. 고객이 편리하게 한번 동작으로(동전 100엔) 끝내게 하면 어떨까?" 이 전략이 주효하여 포카리스웨트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 업계 부동의 1위가 되었다. 오로나민C는 캔 가격을 계속 80엔을 고수했는데, 고객이 동전 100엔 한 개를 넣고는 캔 음료를 포함하여 세 개를 가져오니까(음료 1개, 10엔짜리 동전 2개) 고객으로 하여금 심리적 기대이익을 느끼도록 하여 이것을 구매로 연결한 것이었다. 아무리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만약 성공을 원한다면 그러한 실패도 감내해야 한다. 큰 성공을 바란다면, 더 이상 없을 만큼 큰 성공을 원한다면 더 이상 없을 만큼 큰 실패를 경험해야만 한다. 또한 큰 성공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몰입과 헌신 없이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다. 아무도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정도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비로소 남다른 성과가 나오게 된다. 당연히 희생이 따르겠지만, 그 희생은 성공을 위한 정당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변모하는 치열한 정보전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보를 모으고 연구하여 그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새로운 변화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그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도태하게 되고 결국 자멸하고 말 것이다. 발전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고통을 감수하고 변화와 혁신을 받아들여라. 수많은 반대와 비난에 부닥칠 것이다. 또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으면 발전도 없다. 그래서 말한다. 목숨 걸고 혁신하라고….*

중생제도(衆生濟度) 삼십훈(三十訓)

1.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2. 나를 의식하지 마라.
3.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4. 화(怒)를 내지 마라.
5. 싸우지 마라.
6.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마라.
7. 음란한 마음을 품지 마라.
8. 욕심을 부리지 마라.
9.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10.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겨라.
11.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라.
12. 희생적인 마음을 가져라.
13. 영생의 확신을 가져라.
14. 죽음을 생각하지 마라.
15. 범사에 감사하라.
16. 영생의 희망을 품어라.
17. 형제의 사정을 내 사정처럼 여겨라.
18. 상대방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19.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라.
20. 무슨 일이든지 무례히 행치 마라.
21. 온전한 마음과 행동을 하라.
22. 상대방을 비방(誹謗)하지 마라.
23. 상대방에 대하여 참견하지 마라.
24. 상대방의 장점만 보라.
25.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라.
26. 선한 것만 생각하라.
27. 형제의 말을 하지 마라.
28. 형제의 잘못을 흉보지 마라.
29. 누구한테든지 배우고자 하는 학구적인 자세를 가져라.
30. 상대방의 말을 관심 있게 들어주라.

※ 중생제도 삼십훈은
신자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고자 내리신
구세진인(救世眞人) 조희성님의 옥중서신에서 비롯되었다.

해월신사법설(海月神師法說)의 십무천(十毋天)

1. (내 안에 계신) 한울님을 속이지 말고 정직해라
2. 한울님을 거만하게 대하지 말고 공손하라
3. 한울님을 다치게 하지 말고 안전하게 하라
4. 한울님을 어지럽게 하지 말고 간편하게 하라
5. 한울님을 일찍 죽게 하지 말고 길게 살려라
6. 한울님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하라
7. 한울님을 주리게 하지 말고 배부르게 하라
8. 한울님을 무너지게 하지 말고 반듯하게 하라
9. 한울님을 싫어하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라
10. 한울님을 비굴하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라